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	
성명		
참가 프로그램명	Curso de español presencial 2025	
프로그램 참가기간	8월1일~29일	

1.스페인 말라가 어학당에 참여양식 메일 작성후 보낸후 수업비 입금->숙소 예약->항권권 예약 및 여행자 보험 가입

2.먼저 첫 시간은 간단한 소개 및 기초적인 수업을한다. 그리고 다른 반 학생들과 합쳐 약간의 이론 수업 후 조를 만들어 이야기했다. 그렇게 2시까지 수업하며, 중간에 10분,20분 정도에 쉬는 시간이있다.(숙제도있음) 두 번째 시간은 간단한 복습을 시작으로 숙제를 한 명씩 발표한다. 그 후 수업 중간에 스페인 문화,음식(말라가 음식), 주변 관광지등을 소개하며, 질문으로 반 학생들에게 자신의 나라 음식,문화를 질문하며 계속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잘못된 부분을 알려 주며 단어,표현을 더 알려준다, 그후 쉬는 시간 후 또 다른 반과 합쳐 수업하며 약간의 이론 수업과 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계속 스페인어를 쓸 수있도록 도움도 주며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를한다. 이렇게 이론수업과 말하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 관한 정보도 많이 주며 쓰기,말하기,듣기등 늘릴 수 있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하며 9~2시까지 수업이다. 그래서 주로 주말에 박물관,미술관 등등 구경했다.

먼저 피카소 박물관을 갔으며, 입장은 학생이라 무료였다 관람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이고 피카소 그림 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의 그림도 있으며 사진전도있으며 조각등 다양한걸 볼 수 있다는게 좋았다. 그 후 빠에야를 먹었는데 맛있었다. 그 후 센트로를 돌아 다니며 구경했다. 말라가는 아랍영향을 받아 건물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였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추천 해준 해상물 삭당을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못 먹어 본 음식이라 신기하면서 맛도 있었다. 또한 이런 레스토랑을 chiringuito라고 하며 해변가쪽에 있는게 특징이다. 그후 해변을 둘러 보았다. 에어컨이 없는 경우도있어 더워서 힘들었지만 나름 좋았던 경험이

다. 그다음은 또 선생님이 추천 해준 음식을 먹었다.소꼬리 요리,차가운 스프,튀김 요리인데 돼지고기,치즈가 들었있는 음식이며 세르비야 요리이다. 그후 말라가 성당을 방문했으며,입장료는 있으며 학생할인 받아 입장했다. 입장 전부터 웅장했는데 입장하고 보니 더 웅장했고 다양한 그림과 건축 양식,조형물이 인상적이었다. 종교 유무를 떠나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그 후 말라가 알카사바를 방문했으며 여기 또한 학생할인 받아 입장했다. 석양을 보고싶었지만 여름이라 해가 늦게 져 마감 전에 입장했으며 알카사바는 이슬람 건축 방식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높은 곳에서 주변 풍경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그 다음은 스페인 전통 춤 공연(플라맹코)가 한다하여 관람했는데 기타공연을 시작인데 너무 슬픈 느낌에 음악이였고 그 후 보컬이 들어가며 여자분이 플라맹코를 추는데 너무 아름 다우면서 그 안에 스페인 사름들에 삶 또한 알 수 있었던것같아 너무 만족이였다.

그리거 8월15일 말라가 지역 축제날이였다.(Feria de Malaga) 전날 선생님이 축제에 대해 알려 주었으며, 이때 즐겨 마시는 술도 알려주셨다. 그래서 구경을 갔다. 첫날은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를 한다. 퍼레이드는 상당히 컸으며 역사적인 퍼레이드였다. 사람이 만하아 구경은 힘들지만 옛날 말라가 역사를 느낄수 있다는게 장점이고 퍼레이드 쫓아 가며 구경중 중간중간 현지 사람과 대화 하며 축제 분위를 즐겼다. 축제 기간 동안 수업은 없으며 여러 숙제가았다. 하지만 충분히 축제를 즐길 수 있었으며 이때 가장 많은 경험을 했다. 저녁 쯤 축제때 마시는 술을 구매후 불꽃놀이가 가장 잘보이는 쪽으로 이동후 기달려 불꽃놀이 구경하며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느꼈다. 잊지못할 추억이 생겨 너무 좋았다. 그 후 여러본 축제를 구경하며 너무 더워 카르켄 티센 박물관에갔다. 생각 보다 규모가 컸으며 1시간 정도 소요했다.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본 작품이 더 마음에 들었다. 종교적인 작품이 꽤 많았으며 스페인 사람들을 일상 그림도 많아 유익하고 즐거웠다.그리고 스페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투우를 qkTek. 축제 기간이라 볼 수있어 미리 티켓을 예매하였다. 투우는 약 2시간 정도 하였으며 처음에는 모르는것도 많았지만 주변에 물어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보니 자극적인 느낌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볼 것 같다.

3.참여 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하며 여러 정보와 생각을 알 수있어 너무 좋았고 스페인어 기본을 다지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좀더 키울 수있었다. 그라고 내가 가장 느끼고 싶어했던 문화를 많이 경험해서 너무 좋았고 완전한 유럽 느낌보다 아랍 느낌이 섞여있어 더 특별 했던 것 같다. 그 후 해외 취업에 대한 생각을 더 할 수 있게되었으며 조금더 시야를 넓힌것같다.

4.경비

프로그램 비용:800유로(한화 약130만원)

항공료:1,522,700원(수하물 추가:39,8000원,라운지 이용권:78,000원)

여행자 보험료:55,250원

숙박 비용:1,700000원

통신비:78,999원

식비:1,174586원(주로 카페,식당에서 해결)

여행비용(입장료,관람비용):144,256원

이동비용(택시,버스,지하철):115,838원

기념품:716,73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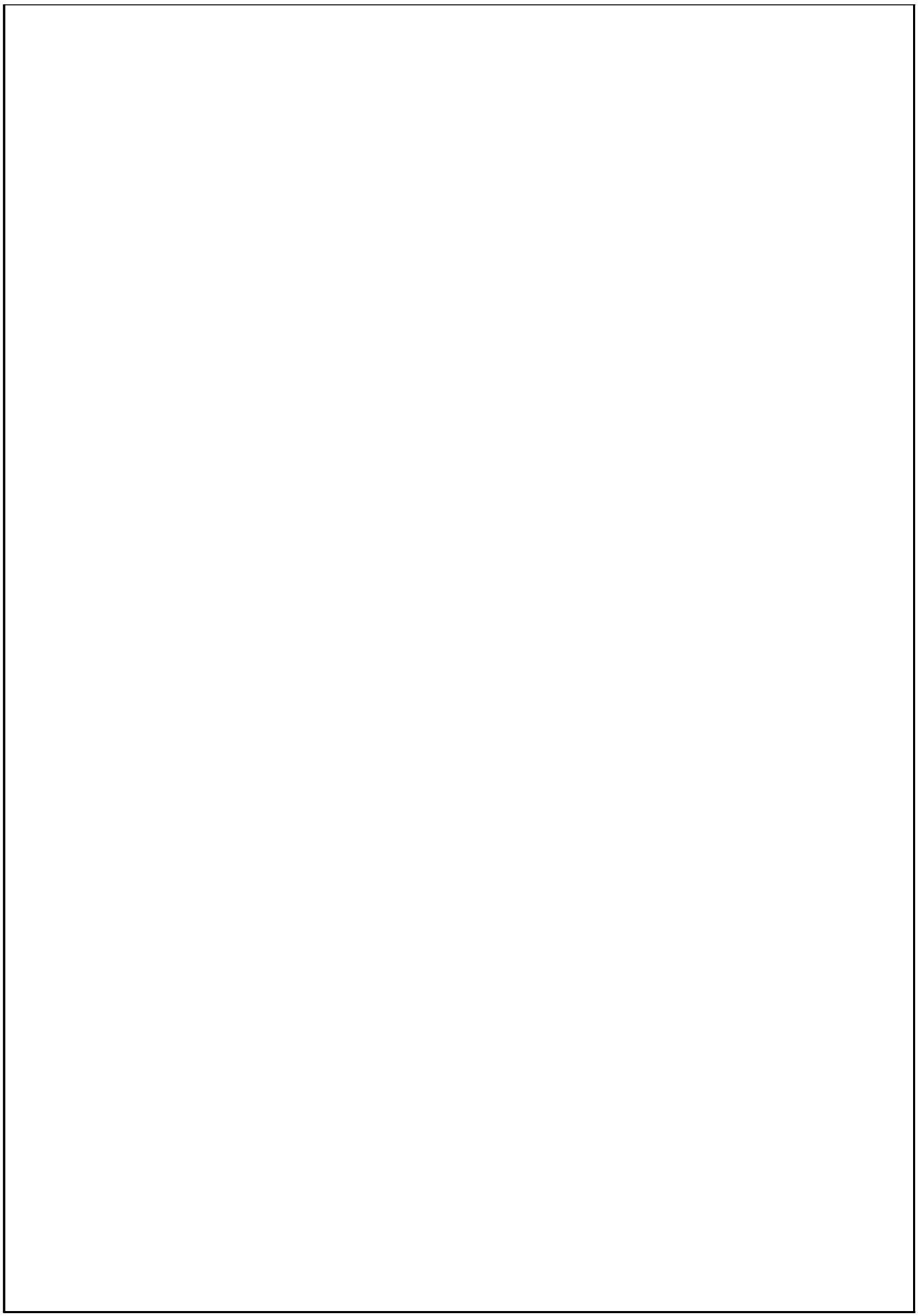
5.프로그램 참가 후: 나는 첫 혼자 떠난거였는데 걱정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다. 하지만 낯선 길과 대중교통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동할 때 바다가 보여 너무 좋았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에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된것같고 한달 정도 살아보며 그 지역 사람들에 생활 방식과 문화를 경험하며 해외 취업을 조금더 진지하게 생갈 수 있는 계기가된 것 같아 너무 좋았으며 해외에 친구도 만들며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았다. 또한 나의 스페인어 실력도 점차 늘려가며 말라가에서 축제도 경험하고 쉽게 볼 수 없는 투우도 볼 수 있어 너무 알차면서 아쉬웠다. 조금더 부지런히 움직여 볼꺼라는 아쉬움과 조금더 머물며 다른 지역도 보고싶은 아쉬움이였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져 보고싶은 생각이 들었으며, 이렇게 혼자 기회가 있다면 다른 나라와 지역을 돌아보고 싶어졌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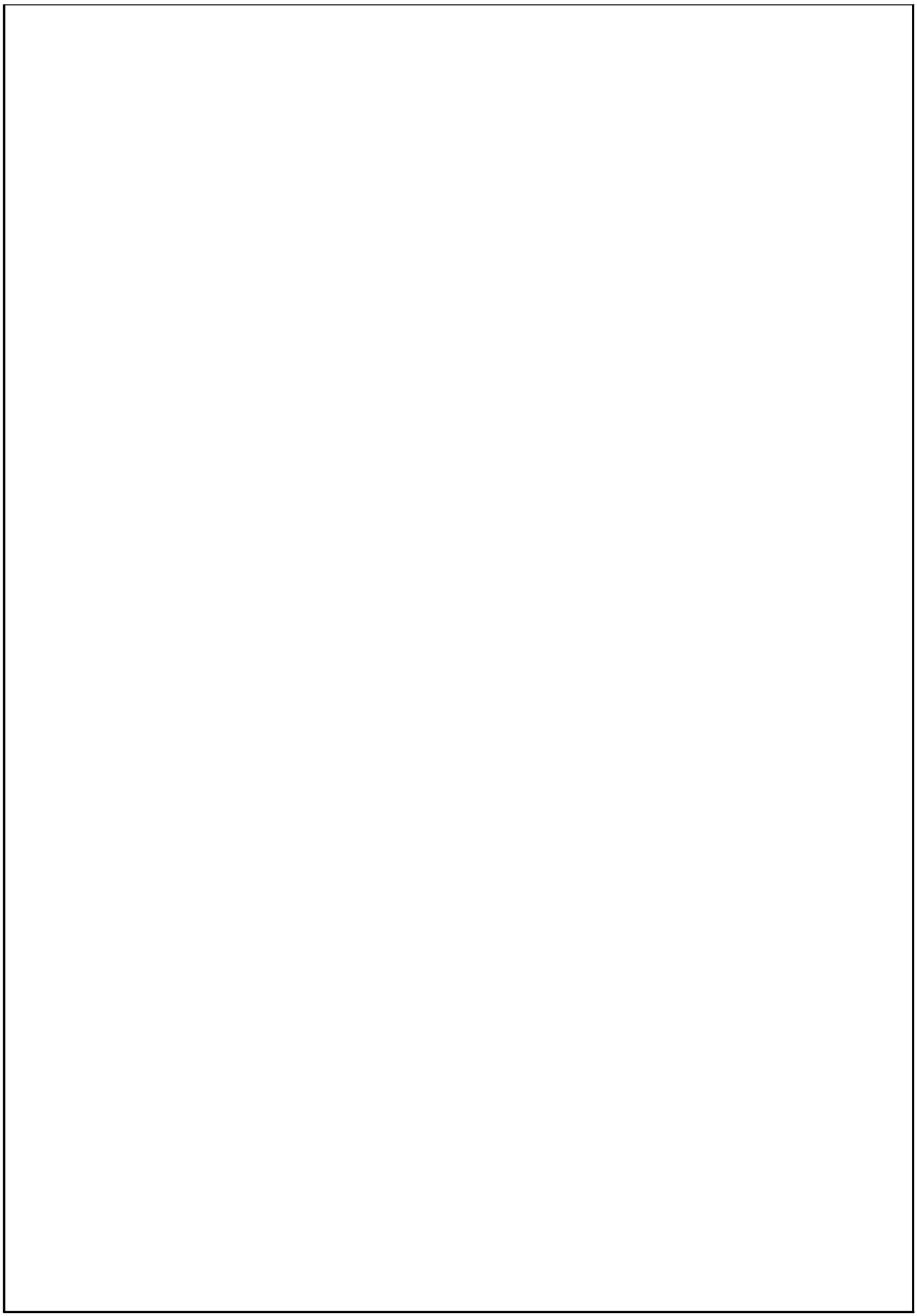
6.앞으로 학업 계획은 더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스페인어 더 열심히 공부하기이고 조금더 적극적으로 도전 해볼 것이다.
진로 계획은 헤외 취업도 생각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더 진지하게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하며 조금더 넓게 보면서 바뀌어가는 흐름 속에서 내가 꿈꾸고 바라던걸 이룰 것이다.
7.향후 참가예정인 학생에게 조온을 하자면 낯을 가리더라도 최대한 마음에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가보고 여러 사람과 대화 나누라고 말해주고 싶고 조금더 부지런히 구경해도 후회하니 최대한 즐기며 해 볼 수있는거 망설이지 말고 해보라고 말해주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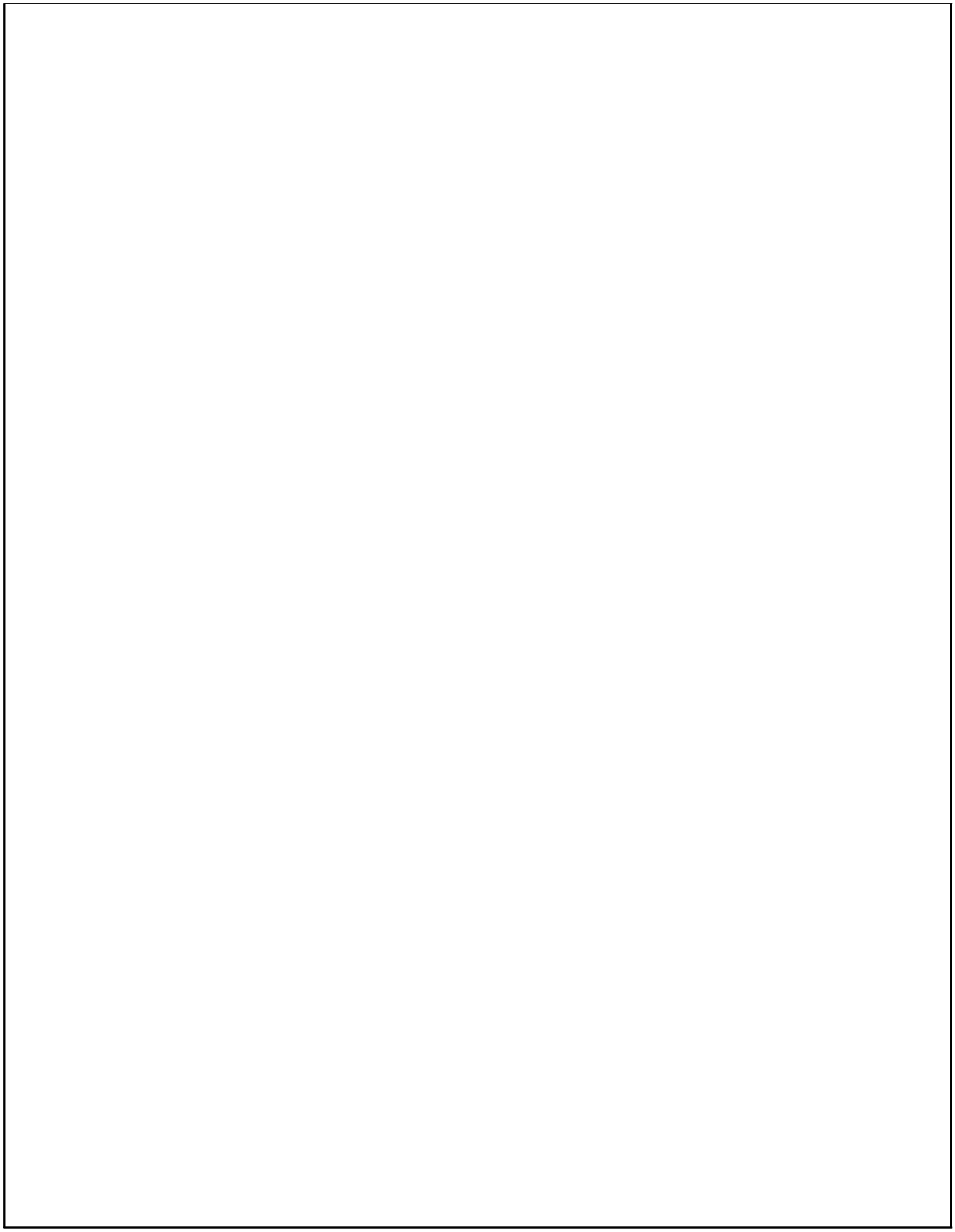
숙소

어학당

축제





축재 때 마시는 술

투우